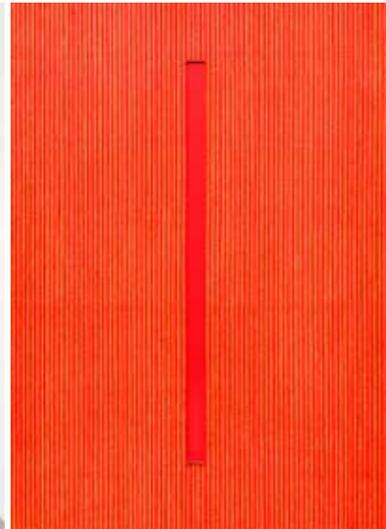


# 단색화 대가 박서보, 색채로 현대인을 치유하다



국제갤러리 1관(K1) 박서보 개인전 설치전경



박서보, Ecriture (描法) No. 080821

박서보(90)는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단색화 대가다. 수행하듯 반복해서 선을 긋는 '묘법' 연작이 대표작이다.

1970년대 초기 묘법은 어린 아들의 서툰 글쓰기에서 착안해 캔버스에 물감을 칠한 뒤 연필로 선 긋기를 반복한 작업으로, 자신을 비우고 수신(修身)하는 과정에 중점을 뒀다.

2000년대 이후 색채 묘법은 손의 흔적을 강조하는 대신 일정한 간격의 고랑으로 형태를 만들고 풍성한 색감을 강조한다.

작가는 두 달 이상 물에 불린 한지 세 겹을 캔버스 위에 붙이고, 표면이 마르기 전에 붉은 연필로 선을 그어 나간다. 농부가 논두렁을 갈듯 연필로 선을 그으면 한지가 좌우로 밀려 산과 골 형태가 만들어진다. 물기를 말린 후 표면에 아크릴 물감을 칠한다.

연필로 긋는 행위를 반복해 완성한 작품에는 축적된 시간이 덧입혀진다. 동시에 작가가 경험한 자연경관, 그의 철학과 사유가 담긴다. 구순의 나이에도 그는 예술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다. 예전처럼 바닥에 놓고 크게 움직이면서 작업은 못 하지만, 요즘도 이젤에 놓고 5시간 정도씩 서서 쉬지 않고 그린다.

개인전 'PARK SEO-BO'는 색채 묘법으로 알려진 2000년대 이후 근작 16점을 소개한다. "자연이 나의 스승"이라는 작가가 공기색, 벚꽃색, 유채꽃색, 와인색, 홍시색, 단풍색, 황금올리브색 등 온갖 자연의 강렬한 색감을 화면에 옮겨 전시장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넘친다.

박서보는 "그림은 수신을 위한 수행의 도구라고 생각한다"며 "서양

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지만, 나는 반대로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비워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엄청나게 변화 속도가 빠른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쌓여 지구가 '스트레스 병동'이 됐다"며 "21세기 미술은 치유의 예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혁대는 사람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아픔을 가중하는 폭력적인 예술은 존재해선 안 되며, 그림으로 불안한 사람에게 평화와 행복을 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1970년대 초기 묘법 연작에서 작가는 색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 위해 흰색을 선택했다. 2000년대 이후 디지털 문명을 접하며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작가는 색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그는 "아날로그 시대에 성공적으로 살았지만, 21세기에 살아날 자신이 없었고 지난 성공을 다 망칠 것 같은 불안에 떨었다"며 자연에서 배운 색으로 극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림이 흡인지처럼 보는 사람의 고뇌 같은 것을 빨아들여야 한다"며 "나는 자연의 색채를 화면으로 유인해 색채로 사람들을 치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시일정(장소) 10월 31일까지(국제갤러리)  
관람료 무료  
☎ 02-3210-9872

## 이건용의 몸으로 그린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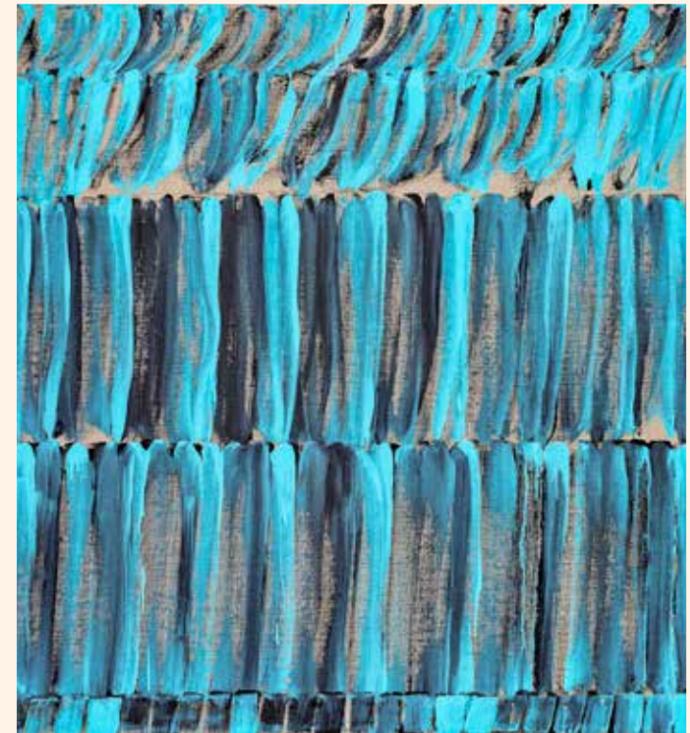
화가라면 화면을 훑어지게 바라보며 온 정신을 집중해 붓질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이건용(79)의 시선은 캔버스를 향하지 않는다. 그의 '신체 드로잉'은 몸의 움직임으로 완성된다.

그는 자신의 키만한 캔버스 뒤에 서서 팔을 화면 앞쪽으로 넘겨 그린다. 팔이 닿는 부분까지만 위아래로 붓질을 해 화면을 채워간다. 화면을 등지거나 화면을 옆에 놓고 서서, 다리 사이 바닥에 놓고 선을 긋기도 한다. 온몸이나 어깨를 축으로 커다란 반원을 만들기도 한다. 키, 팔과 다리 길이 등에 따라 신체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움직이며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한다. 때로는 손목과 팔꿈치를 부목으로 고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신체를 제한한 가운데 간단한 선 긋기 동작을 수행하며 화면에 흔적을 남기는 연작이 '바디스케이프(Bodyscape)'다. 제멋처럼 신체의 풍경, 신체로 그린 풍경이다.

이건용 개인전 '바디스케이프'는 작가의 동명 연작을 폭넓게 선보인다. 아홉 가지 방법으로 그린 '바디스케이프' 신작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한국 실험미술 거장'으로 불리는 이건용은 한국아방가르드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전위적 미술 활동을 펼쳤다. 화가로서의 금융적 시도는 1970년대 군부독재 시절을 지나온 작가의 역설적 자기표현이기도 했다.

이건용은 "하나의 선은 화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림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화란 신체와 평면, 재료가 만나 생기는 현상이며, 그리는 것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구조와 작용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건용, Bodyscape 76-1-2021, 2021, 캔버스에 아크릴릭, 171 x 151cm

전시일정(장소) 10월 31일까지(갤러리현대)  
관람료 무료  
☎ 02-2287-3500



문자도, 19세기, 8폭 병풍, 종이에 채색, 각 62x32.5cm

## 독특한 개성 돋보이는 조선 문자도의 매력

민화의 한 종류로 조선 시대에 발달한 문자도는 문자와 그 의미를 형상화한 그림이다. 기획전 '문자도, 현대를 만나다'는 조선 시대 문자도 11점과 문자도를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 13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한자를 활용해 유교 덕목인 '효제충신예의염치' 8자를 그린 문자도를 주목한다. 18세기 문자도는 교화적 목적으로 제작됐지만, 각 지역 문화와 결합해 지방의 예술로 확산했다. 19세기 후반에는 장식화의 경향을 보이며 조선 생활미술을 대표하기도 했다. 민화는 대부분 작자미상이지만 '백수백복도'(百壽百福圖)는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명시돼 중요한 작품이다. 복(福)자와 수(壽)자를 번갈아 100번을 반복해 구성한 그림으로, 오래 살고 복을 누리라는 수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선 시대 민화임에도 현대적인 타이포그래피를 연상시키는 19세기 후반 문자도도 볼 수 있다. 가장 세련된 형태로 평가받는 유교문자도로, 김기창과 김종학 등 전통 미감을 현대적으로 살린 대가들이 소장했던 작품이기도 하다.

제주도의 자연과 토속적인 문화를 반영한 '제주문자도'는 그림 상단과 하단에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담긴 건물과 기물을, 중앙에는 세나 물고기의 형상을 띤 문자를 배치했다. 현대미술가들의 작품도 나란히 소개된다. 박방영은 인간 삶의 이야기를 일필휘지의 필법과 상형그림으로 그려냈다. 손동현은 문자도라는 전통적인 소재와 그래픽티

전시일정(장소) 10월 31일까지(현대화랑)  
관람료 3천원  
☎ 02-2287-3500

같은 현대적인 주제를 결합했다. 신제현은 화조문자도를 오마주하며 천하게 여겨지던 민화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 SF 대서사시 '들편'



1965년 나온 프랭크 허버트의 소설 '들편'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SF 고전이다. 올해 초 국내서 새로 번역 출간된 6권 시리즈의 분량은 4천300여 쪽에 달한다.

이 대작을 처음 영화로 만들겠다고 나선 칠레 출신의 알레한드로 조도로프스키 감독은 상영 시간 16시간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결국 기획이 무산됐다.

리들리 스콧 감독이 중도 사임하고 데이비드 린치가 연출을 맡은 영화가 우여곡절 끝에 1984년 세상에 나왔으나 136분 분량으로 압축된 영화는 무성한 뒷말과 아쉬움을 남겼다.

'컨택트'(2016), '블레이드 러너 2049'(2017)를 만든 드니 빌뇌브 감독이 내놓은 2021년 판 '들편'은 지난해 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확산 속에 개봉을 미루다 올해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였다.

영화는 1만9년,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후계자이자 시공을 초월한 존

재로 전 우주를 구원할 운명을 타고난 폴(티모테 살라메 분)의 이야기다. 폴과 아트레이데스 가문은 인류의 생존을 결정지을 신성한 환각제 스파이스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모래 행성 아라키스로 향한다.

155분으로 편집된 이번 영화는 2부작으로 기획된 영화 중 1부에 해당한다.

드니 빌뇌브 감독은 영화 공개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10대 때 읽은 원작 소설은 “오랜 시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동반자이자 경전”이라며 “영화는 원작에 보내는 연서”라고 말했다.

앞선 감독들이 실패를 거듭했던 거대한 이야기를 영화화하기로 하면서 “원작의 정수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소설의 복잡함을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원작의 서사시를 최대한 느린 템포로 표현하고 소설의 모든 요소를 다 포용하고 포함하고 싶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습니다. 소설을 읽지 않은 관객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없는, 책의 최종판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여자들’이라고 했다. 감독은 “원작 소설의 가장 독특하고 강력하며 완벽한 요소라고 생각한 것 중 하나는 베네 게세리트의 여성들과 레이디 제시카라는 멋진 인물이었다”며 “그가 짚어준 부담과 그의 품

위를 전면에 내세우고 싶었다”고 했다.

베네 게세리트는 최상의 유전자 교배를 통해 초능력을 지닌 여성들의 학교이자 학파로, 폴의 어머니 레이디 제시카도 베네 게세리트 훈련을 받았다.

“이 영화는 물론 폴의 시점에서 보이는 것이지만, 그의 어머니도 영화의 여정에서 풀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영화는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그게 이 영화의 미학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중요한 여성성을 포용하고, 강화하고, 전면에 내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감독** 드니 빌뇌브  
**출연** 티모테 살라메, 레베카 퍼거슨, 오스카 아이작, 제이슨 모모아, 조슈 브롤린, 허비에르 바르뎀, 젠데이아, 장첸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개봉** 10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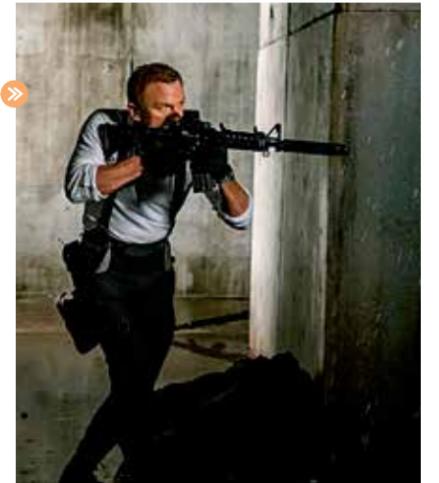
## 007 노 타임 투 다이

1962년 '007 살인번호'로 시작한 007 시리즈의 스물다섯 번째 작품. M16를 떠난 뒤 매들린(레이아 세이두)과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중, 위험에 처한 세계를 구하기 위해 복귀한 제임스 본드(대니얼 크레이그)의 마지막 미션을 그린다.

본드는 새로운 M16 요원 노미(라사나 린치)를 만나고, 모든 사건의 배후에 운명으로 얽혀 있는 최악의 적 사핀(라이 말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낸다.

**감독** 캐리 후쿠나가  
**출연** 대니얼 크레이그, 라이 말렉, 라사나 린치, 레이아 세이두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개봉** 9월 29일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자메이카 등 4개국 로케이션에 시리즈 최초로 아이맥스(IMAX) 카메라를 도입했다. 제작비도 시리즈 사상 최고인 2억5천만달러를 들었다.



## 쁘띠 마방

지난해 칸영화제 각본상 수상작인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으로 국내에 신드롬을 일으킨 이후 '툰보이'(2011), '워터 릴리스'(2007), '겔후드'(2014) 등 전작이 한 해에 모두 개봉한 셀린 시아마 감독의 신작이다.

외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8살 소녀 벨리가 엄마 마리옹과 함께 시골집으로 내려간다. 엄마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곳에서 벨리가 엄마와 이름이 같은 동갑내기 마리옹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마법 같은

시간을 그린다. 연기 경험이 없는 쌍둥이 자매 조세핀 산스와 가브리엘 산스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작이었다.

## 푸른 호수

입양된 후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온 한국계 입양인 안토니오에게는 누구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아내 캐시와 사랑스러운 딸 제시, 곧 태어날 아기가 전부다.

어느 날 억울한 상황에 휘말려 경찰에 붙잡힌 안토니오는 영문도 모른 채 이민단속국으로 넘겨지고,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난생처음 알게 된다. 강제 추방 위기에 처한 안토니오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분투한다.

**감독** 저스틴 전  
**출연** 저스틴 전, 알리시아 비칸데르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개봉** 10월 13일

배우로 활동하다 감독으로 데뷔한 한국계 미국인 저스틴 전이 각본과 감독, 주연까지 맡았다. 지난 7월 칸국제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에 선보였고 부산영화제에도 초청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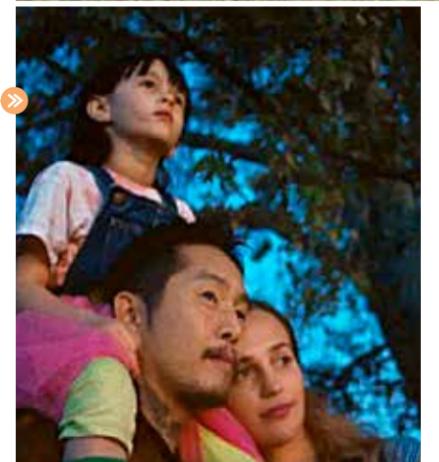
## 아네트

'퐁네프의 연인들'로 잘 알려진 레오 카락스 감독이 '홀리 모터스' 이후 9년 만에 선보인 신작이자 첫 영어 연출작이다.

오페라 가수 안과 스탠드업 코미디언 헨리가 사랑에 빠지면서 무대 그 자체가 된 그들의 삶을 노래한 뮤지컬 영화다. 그들에게 특별한 운명을 가진 딸 아네트가 찾아온다.

**감독** 레오 카락스  
**출연** 애덤 드라이버, 마리옹 코티אר  
**등급** 미정  
**개봉** 10월 27일

올해 칸국제영화제 개막작이자 감독상 수상작. 부산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에 초청된 카락스 감독이 내한해 마스터 클래스로 관객을 만난다.



#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대표적인 가을 페스티벌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GMF 2021)'이 2년 만에 현장에서 개최된다. 넬, 십센치, 데이브레이크, 어반자카파, 정승환, 정준일, 페퍼톤스, 선우정아, 박혜원, 이승윤, 이무진, 멜로망스, 정세운, 너드커넥션, 소수빈, 설(SURL) 등 총 32팀이 무대에 선다.

나흘간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열린다는 의미에서 더 관심이 쏠린다. 주최사 민트페이퍼 측은 더 촘촘한 방역을 통해 대중음악공연의 '모범 사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사람은 증명서를 보여준 뒤 간편하게 입장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관객은 현장에서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를 활용해 검사를 받은 뒤 음성으로 확인돼야 공연장 입장이 가능하다. 민트페이퍼는 앞서 6월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1'에서도 관객

4천 명을 비롯해 직원, 아티스트 등의 자가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2007년부터 열린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은 15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적인 대중음악 축제다. 도심 속의 페스티벌을 콘셉트로 친환경 축제를 지향한다. 접근성이 좋은 데다 페스티벌 마니아들과 대중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양한 라인업으로 거의 매년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수많은 록 페스티벌이 이 페스티벌의 무대를 차용하고 콘셉트, 입점 업체들, 참여 뮤지션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공연일정(장소)** 10월 16~17일, 23~24일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관람료** 1일권 9만9천원  
☎ 1544-1555

## 아카이브K-ON



음악 콘텐츠 기업 11018은 새 시리즈 콘서트 '아카이브K-ON'의 막을 연다. 앞서 11018이 제작한 SBS TV '전설의 무대-아카이브 K'의 동아기획 편, 학전 소극장 편에 출연한 가수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김현철, 장필순, 동물원, 여행스케치, 함춘호, 박학기, 유리상자, 조규찬 등 1980~1990년대 국내 대중음악 르네상스를

이끈 뮤지션들이 '우리, 지금 그 노래'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선보인다. 출연자들이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며 관객과 노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이들과 한 무대에 설 신인 가수도 선발할 예정이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그 시절 학전으로 돌아가 보자.

**공연일정(장소)** 10월 22~23일(블루스퀘어)  
**관람료** 13만2천원  
☎ 1544-1555

## 장민호



TV조선 '미스터트롯' 톱6의 '말형' 장민호가 첫 단독 콘서트 '드라마'를 연다. 장민호는 '미스터트롯' 멤버들과 함께 단체 공연을 선보인 적은 있지만, 단독 콘서트는 1997년 데뷔 이후 처음이다. '미스터트롯'을 통해 막강한 팬덤을 형성한 그의 첫 콘서트에 기대가 모인다. 아이돌그룹 유비스로 데뷔한 그는 2011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다. 2013년 '남자는 말합니다'가 히트하면서 출중한 가창력과 더불어 수려한 외모로도 주목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미스터트롯'을 기점으로 가수 인생 최고 전성기를 맞았다.

**공연일정(장소)** 10월 16~17일(올림픽공원 올림픽홀)  
**관람료** 9만9천~13만2천원  
☎ 1544-1555

## 하동균



호소력 짙은 보컬을 자랑하는 가수 하동균이 2년 만에 여는 단독 콘서트로 팬들을 만난다. 마지막 회차 공연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 진행돼 더 많은 팬에게 다가간다. 무대 위 공연 실황과 사전 제작된 라이브 영상을 다양하게 조합해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2004년 4인조 보컬 그룹 원티드로 나선 하동균은

독특한 창법과 굵직한 목소리로 대표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거듭났다. 대표곡으로 '그녀를 사랑해줘요', '나비아', '혼자말', '올웨이즈' 등이 있다. KBS 2TV 드라마 '공주의 남자' OST(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인 '기다릴게'는 대표적인 노래방 애창곡으로 꼽히며 사랑받았고 최근 하동균은 봉규와 함께 리메이크 버전도 내놨다.

**공연일정(장소)** 10월 15~17일(블루스퀘어)  
**관람료** 11만원  
☎ 1544-1555

## 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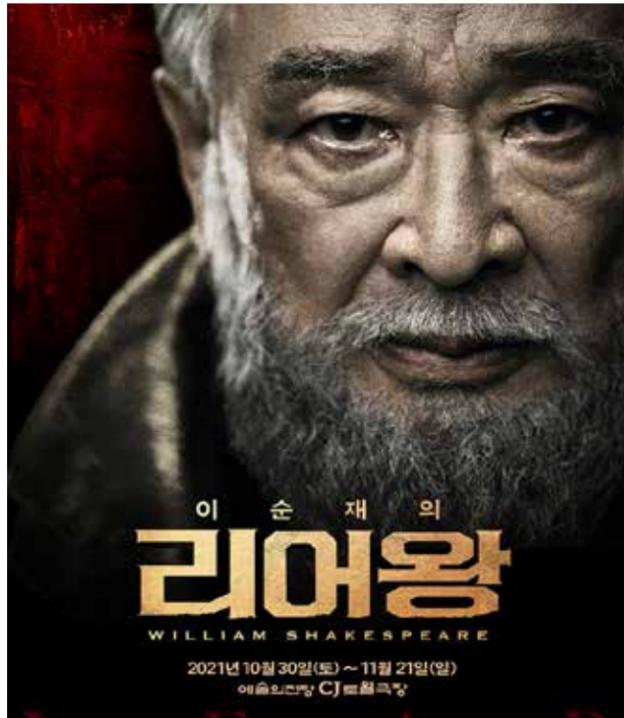


신예 싱어송라이터 서리(Seori)가 데뷔 1년 반 만에 첫 콘서트 '서리 인 더 나이트'를 펼친다. 유튜브에서 커버곡 영상을 올려 이름을 알린 서리는 지난해 첫 번째 EP(미니앨범)를 내고 정식 데뷔했다. '러닝 스루 더 나이트', '헤어드라이어' 등 색깔 있는 음악으로 팬층을 넓혔고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곡

'제로 바이 원 러브 송'을 피쳐링해 화제가 됐다. 최근에는 영화 '상차와 텐 링즈의 전설' OST '워리어스'를 부르기도 했다. 미국에 거점을 둔 글로벌 음반사 88라이징과 계약을 맺으면서 세계 팬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오는 11월 미국 음반사 88라이징이 개최하는 음악 축제 '헤드 인 더 클라우즈 & 이츠 페스티벌'에 참가해 글로벌 팬들 앞에 설 예정이다.

**공연일정(장소)** 10월 16~17일(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관람료** 8만8천원  
☎ 1544-1555

# 이순재 연기 인생 담은 연극 '리어왕'



**공연일정(장소)** 10월 30일~11월 21일(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관람료**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 02-580-1300, 1544-1555, 1588-7890

연기 인생 65주년을 맞은 배우 이순재(88)가 출연하는 연극 '리어왕'이 공연된다. '리어왕'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가장 숭고하고 압도적이라고 평가받는 작품으로, 오만함에 눈이 가려져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초래하는 갈등과 혼란을 다룬다. 모든 것을 소유한 절대 권력자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미치광이 노인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리어왕' 역은 배우 이순재가 연기한다. 그는 "고전 작품이 주는 힘이 있다. 기존에 있던 공연들과 달리, 제대로 된 리어왕을 보여주겠다. 나의 65년 연기 인생의 경험을 모두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리어왕의 첫째 딸 고너릴은 소유진·지주연, 둘째 딸 리건은 오정연·서송희, 셋째 딸 코딜리아는 이연희가 연기한다. 특히 이 작품으로 연극 무대에 데뷔하는 이연희는 바보 광대 역할까지 해내는 코딜리아에 도전한다.

글로스터 백작 역은 최종률, 그의 적자 에드거 역은 권해성·박재민, 서자인 에드먼드 역은 박영주가 맡는다. 리어의 충신인 켄트 백작은 박용수, 고너릴의 집사인 오스왈드 역은 김인수·임대일이 연기한다. 고너릴의 남편인 올바니 공작 역에는 유태웅, 리건의 남편인 콘월 공작 역에는 염인섭이 캐스팅됐다. 이번 공연에서 주목할 점은 원작을 철저히 반영하는 셰익스피어 본연의 '리어왕'을 무대화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국내의 대표 셰익스피어 학술단체 임원을 역임하며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는 이현우 순천향대 교수가 번역과 연출을 맡았다.

## 연극무대 오르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은 러시아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1821~1881)의 대표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연극무대에 오른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친부살인'을 소재로 도스토옙스키가 평생 탐구해왔던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녹여낸 작품이다. 극단 피악은 지난 2017년 방대한 원작을 연극적 언어로 충실히 옮기기 위해 장장 7시간짜리 공연으로 선보여 관객과 평단의 주목을 받았으며, 고전의 무대화에 이상적인 표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극은 나이 60세의 도스토옙스키가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관객에게 들려주며 시작된다. 방탕한 호색한인 아버지 표도르, 그루센카란 여인을 두고 아버지와 갈등하는 큰아들 드미트리, 무신론자인 둘째 이반, 순수한 영혼을 지닌 셋째 알료샤, 표도르의 사생아인 스메르자코프 등을 둘러싼 사건과 인물들 간의 갈등을 그린다. 배우 정동환은 지난 공연에 이어 다시 무대에 오른다. 도스토옙스키와 조시마 장로, 대심문관, 식객, 변호사 등 1인 5역을 맡는다. 아버지 표도르 역은 이기복이, 큰아들 드미트리와 둘째 아들 이반은 주영호와 한윤준이 각각 연기한다. 셋째 알료샤 역은 김찬, 스메르자코프 역은 조창원, 그루센카 역은 박결이, 카체리나 역은 정수영이 캐스팅됐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 3시간씩 총 6시간 동안 진행된다.

**공연일정(장소)** 10월 12~31일(동국대학교 이해랑예술극장)  
**관람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 1544-1555



**공연일정(장소)** 10월 5일~2022년 1월 2일(대학로 티오엠(TOM) 1관)  
**관람료** R석 6만6천원, S석 4만4천원  
**☎** 1544-1555

개발됐고, 지난해 창작산실-올해의 신작 후보로 선정돼 무관중 리딩 쇼케이스와 일반 관객 대상 쇼케이스를 진행한 바 있다. 뮤지컬 배우 이경수, 박민성, 정원영, 황민수, 최재웅, 황순중 등이 출연한다. 임채리 작가가 극본을, 우진하가 연출을 맡았다. 이정연 작곡가, 마창욱 음악감독, 황보주성 안무가 등이 창작진으로 참여한다.

조선 소방조직 다룬 창작뮤지컬 '멸화군' 초연  
창작뮤지컬 '멸화군'이 대학로에서 초연된다. 작품은 조선 세조 시대를 배경으로, 24시간 화재를 감시했던 우리나라 최초 소방 조직인 멸화군을 다룬다. 의문의 연쇄 방화범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지켜나간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 범추 추적 드라마다. 2017년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 사업을 통해 리딩 공연으로

#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빈더 내한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로 불리는 오스트리아 출신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빈더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뚫고 내한해 관객들과 만난다. 2019년 5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그는 원래 베토벤 탄생 250주년인 지난해 9월 내한해 ‘디아벨리 프로젝트’ 및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와 함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지휘·협연 무대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부흐빈더는 전 세계의 저명한 지휘자 및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활발히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16~2017시즌엔 70세 생일을 맞아 미국 뉴욕 카네기홀, 일본 도쿄 산토리홀 등 대형 공연장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라인,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등에서 축하를 받았다.

또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이끄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비롯해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투어도 진행했다. 세계적인 지휘자 마리스 안손스로부터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상주 아티스트로 초청받아 활동하기도 했다.

2017~2018시즌엔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버밍엄 심포니, 라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안드리스 넬손스의 지휘로 보스턴 심포니와 협연했다.

그는 바흐부터 현대음악까지 광범위한 레퍼토리로 100장이 넘는 음반을 남겼고, 앨범상도 다수 받았다. 베를린, 베이징,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트페테르부르크, 취리히 등에서 베토벤 소나타 전곡(32곡) 사이클을 50회 이상 가졌다. 베토벤 전문가로서 독보적인 발자취다. 부흐빈더의 음악적 해석은 역사적인 자료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열렬한 악보 수집가로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에디션을 39판 소장하고 있다. 그의 서재엔 악보 초판과 원판 등 많은 양의 악보들이 있다.

그는 2007년 오스트리아 그라페네크 페스티벌 창단 이후 이 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페스티벌은 현재 유럽 주요 관현악 축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번 내한 공연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와 ‘디아벨리 프로젝트’ 등 2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소나타 무대에선 8번 ‘비창’, 10번, 14번 ‘월광’, 20번, 21번 ‘발트슈타인’을 연주한다. 2019년 내한 당시 매진 행렬을 기록했던 공연을 토대로 엄선했는데, 한국인이 사랑하는 베토벤의 베스트 프로그램으로 꾸몄다.

디아벨리 무대에선 클래식 음반사 도이체 그라모폰(DG)에 합류하고 첫선을 보인 앨범 ‘디아벨리 프로젝트’ 수록곡들을 선보인다. 그는 지난해 3월 막스 리히터, 로디온 세드린 등 동시대 주목받는 작곡가들의 손을 거쳐 2020년 버전으로 재탄생한 베토벤 디아벨리 변주곡 등을 두 장의 CD에 나눠 담았다.

**공연일정(장소)** 10월 19~20일(예술의전당), 10월 21일(대전예술의전당), 10월 24일(대구콘서트하우스)  
**관람료** 5만~13만원  
**☎** 02-599-5743

## ‘21세기 하이페츠’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 리사이틀

‘21세기 하이페츠’로 불리는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두 차례 취소 끝에 내한해 리사이틀을 갖는다. 2019년 10월 아내인 볼쇼이발레단 수석무용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와 함께 꾸민 ‘투 애즈 원’ 무대 이후 2년 만이다.

그는 원래 지난해 4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국립오케스트라와의 내한 공연, 올해 6월 내한 독주회 등을 계획했다가 코로나19로 모두 취소한 바 있다.

바딤 레핀은 야샤 하이페츠,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기돈 크레머 등 거장들의 계보를 잇는 러시아 바이올리니스트의 전통으로 평가받는다.

5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한 그는 11세 때 비에나프스키 콩쿠르에서 금메달, 17세 때 퀴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거머쥐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바이올리니스트 막심 벤게로프,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키신과 함께 ‘러시아 신동 삼총사’로 불렸다.

사이먼 래틀, 발레리 게르기예프, 마리스 안손스, 예후디 메뉴인 등 거장 지휘자들과 함께 뉴욕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등과 협연하며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국제 경력을 쌓아왔다.

실내악 활동도 하는 그는 마르타 아르헤리치, 미샤 마이스키, 예브게니 키신, 랑랑 등과 영국 BBC 프롬스, 스위스 베르비에, 미국 탕글우드 등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무대에 오르고 있다.

꾸준한 앨범 활동도 이어가고 있는데 2010년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의 승리상’ 및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았다. 현재 1733년산 스트라디바리 ‘로데’를 사용하고 있다.

**공연일정(장소)** 10월 17일(예술의전당), 10월 18일(대전예술의전당)  
**관람료** 3만~12만원  
**☎** 02-6954-7760

이번 내한 공연에선 드뷔시의 ‘바이올린 소나타’,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선보인다.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협연한다.



## 코로나 블루 떨쳐내는 ‘놀이동산’...제13회 서울국제음악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이전과 다른 삶을 보내고 있는 요즘, 당연히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놀이동산’을 주제로 한 제13회 서울국제음악제가 위로를 전한다. 음악제 콘셉트는 가족·연인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던 순간을 떠올리며, 다시 행복의 순간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 놀이기구를 즐기듯 즐거움과 행복을 찾길 바라는 마음이 프로그램에 담겼다.

서울국제음악제는 꾸준히 이 시대 작곡가들에게 곡을 위촉하고, 초연해 왔다. 이번엔 남상봉의 ‘기묘한 놀이동산’,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1번’을 류재준이 편곡한 ‘12대의 첼로를 위한 콘체르탄테’,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를 영국 첼리스트 제임스 베럴릿이 편곡한 버전 등이 초연된다.

개막 공연에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호른 협주곡 1번’과 류재준의 ‘교향곡 2번’이 선보인다. 핀란드 출신 할프 고토니의 지휘로 SIMF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며, 크로아티아 호른리스트 라도반 블라트코비치가 협연한다. SIMF 오케스트라 악장은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맡는다. 특히 ‘코로나 시대의 우리를 그린 자화상’이란 설명이 붙은 류재준의 ‘교향곡 2번’은 세계 초연이다. 류재준이 평소 ‘나의 영웅’이라고 밝힌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모티브 했다.

국립합창단과 수원시립합창단이 함께하며, 소프라노 임선혜와 이영주,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테너 국윤중,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등 5명의 성악가도 출연한다.

‘교향곡 2번’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가사로 한다. 소네트는 런던에 흑사병이 창궐해 모든 극장이 문을 닫았을 때 셰익스피어가 편찬한 것으로, 팬데믹 시대의 아픔과도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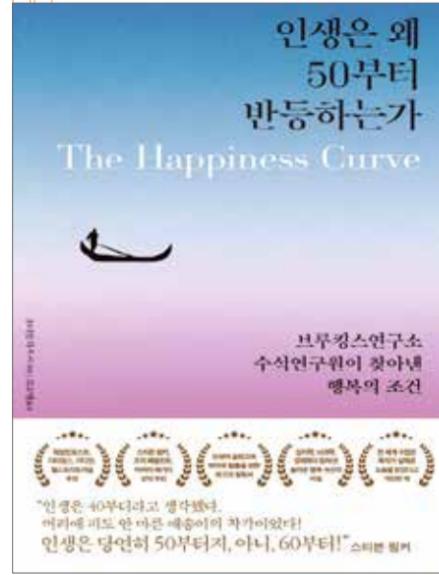
폐막 공연에선 첼리스트 12명이 꾸미는 ‘회전목마’ 무대가 마련된다. 첼리스트 송영훈과 김민지, 이정란, 이상 앤더스 등이 관객들과 만난다.

**공연일정(장소)** 10월 23~30일(예술의전당·JCC 아트센터·롯데콘서트홀)  
**관람료** 2만~15만원  
**☎** 1544-5142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으로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한 김초엽의 첫 장편. 소설에 등장하는 괴면지 '더스트'는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를 떠올리게 한다. 2058년 인간이 만든 문명은 거의 멸망한다. 세계 인구는 90% 가까이 줄었는데, 사인의 대부분이 더스트로 인한 질환이다. 더스트는 호흡기는 물론 피부에 닿기만 해도 인간의 목숨을 앗아간다. 숙주만 있으면 늘어나는 바이러스처럼 자가 증식하는 독성 먼지다. 살아남은 인간은 지붕을 씌운 '돔 시티'를 건설함으로써 스스로 외부 대기로부터 격리한 채 생존을 위한 사투를 이어간다. 돔 시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며, 약자들은 무력하게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서사 구도는 기시감을 주기도 한다. 인류는 결국 괴면지를 극복해낸다. 그리고 문명 재건 70주년을 맞은 시점에 대한민국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증식한 유해 잡초 '모스바나'의 생태 특성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대멸종을 일으킨 비밀이 드러난다.

김초엽 지음/ 자이언트북스 펴냄/  
1만5천원/ 3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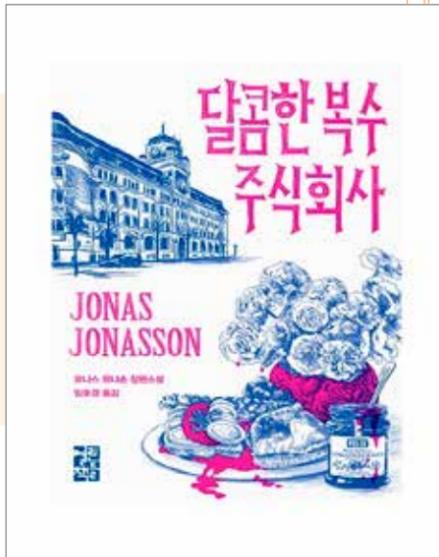


청춘은 최고의 시절, 중년은 위기의 시간, 노년은 슬픔과 상실의 시기라는 고정 관념이 있다. 이 같은 관념은 인간이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죽음에 근접할수록, 삶의 행복 지수가 줄어든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요컨대 삶은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은 후 다시 내려오는 n자형 곡선을 취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 겸 언론인인 저자는 "인생 만족도가 40대에 최저점을 찍고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대 이후부터 반등하는 U자 모양 행복 곡선이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20년간 경제학, 심리학, 신경생물학, 신경과학, 정신의학, 사회학 등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살피고, 각 분야 대표 석학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후, 직접 성인 30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달한 결론이다.

조너선 라우시 지음/ 김교명 옮김/  
부키 펴냄/ 1만8천원/ 4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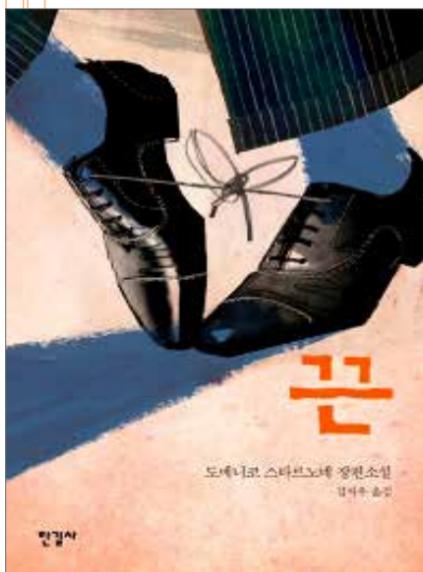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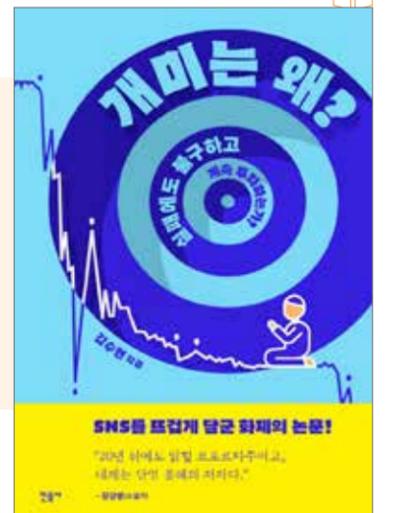
살다 보면 가까운 이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겪는다.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원초적 감정은 복수심이다. 다만 복수심을 실제 복수로 행동에 옮기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현실 세계에선 그렇게 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많기 때문이다.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 작가이자 대중적인 이야기꾼 요나스 요나손은 누구에게나 있는, 이런 복수에 관한 감정을 소설로 표현했다. 긍정적이고 유머 넘치는 '휴머니스트'인 요나손의 성격과 작풍을 보여주듯 이 소설 역시 잔인한 고어 영화 같은 복수를 말하지 않는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안에서 다소 소심하면서 때로는 귀엽기까지 한 복수가 등장한다. 특히 이처럼 억울한 마음만 통쾌하게 달래주는 '달콤한 복수'를 대행하는 회사가 있다는 상상력이 흥미롭다.

요나스 요나손 지음/ 임호경 옮김/  
열린책들 펴냄/ 1만5천800원/ 524쪽



증권투자자를 위한 매매방은 2000년대 중반부터 서울과 경기,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사무실과 독서실을 합친 듯한 매매방 이용자의 상당수는 50대 남성이다. 개인전업투자자가 꿈인 이들은 회사에 출근하듯이 매일 매매방으로 간다. 돈을 잃는 와중에도 입실료를 내고 매매방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대 대학원에서 인류학을 전공한 저자는 책에서 매매방에 입실하는 중년 남성들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결과를 서술한다.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이 원글인 이 책은 서울의 한 매매방에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진행한 현지 조사의 결과물이다. 저자의 논문은 제1장 '작게 여러 번 따서 한 방에 날린다'에서 소개한 '실패하는 개인투자 3단계'로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게이미들이 실패에도 투자를 계속하는 이유를 행동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한 부분이다.

김수현 지음/ 민음사 펴냄/  
1만6천원/ 352쪽



이탈리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속칭 '웃픈' 장편소설이다. 주인공은 70대 노부부 알도와 반다. 남편 알도가 어린 여자자와 사랑에 빠져 가정을 버리지만,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통속적이지만 매우 인간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스트레가상 수상 작가인 도메니코 스타르노네의 대표작 중 하나다. 세 개의 이야기를 서술자를 바꿔 진행하는 독특한 서사로 하나씩 감춰진 비밀을 풀어가며 흡인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제1권은 아내 반다가 가족을 떠난 남편 알도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전하는 편지 형식이고, 알도의 시점인 제2권에서는 노인이 된 알도와 반다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의 골을 안고 여름휴가를 떠났다가 집에 돌아와 갈등하고 충돌한다. 제3권은 알도와 반다의 딸 안나의 관점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딸 안나와 아들 산드로는 보상 심리로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운다.

도메니코 스타르노네 지음/ 김지우 옮김/  
한길사 펴냄/ 1만5천원/ 296쪽



"사람들은 집에서 꿈을 키웁니다. 남편의 성공, 가족의 건강과 화목,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 그 모든 것이 잘되기를 바라는 당신!" 2002년 한 건설회사가 만든 아파트 지면 광고 문구다. 이 글에서 집은 여성의 공간이다. '좋은 집'을 마련해 가족의 행복을 일구는 일이 '집사람'이라 불리는 여성의 몫임을 암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집이 여성의 영역이라는 점은 이따금 불거지는 남성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서도 확인된다.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 으레 등장하는 말이 "부인이 한 일이라 나는 잘 몰랐다"는 것이다. 여성학자인 저자는 부동산이 여성의 일로 인식되고, 여성들이 부동산에 몰두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여성 담론으로 분석한다. 여성주의적 관점을 차치하고서라도 한국 부동산 정책 및 투자의 흐름을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최시현 지음/ 창비 펴냄/  
2만원/ 308쪽

**'발굴 50주년' 무령왕릉 유물 한눈에...출토품 전체 첫 전시**

글 박상현 기자

백제 벽돌무덤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충남 공주 무령왕릉의 발굴 5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출토 유물 전체가 공개됐다. 국보 12건 17점을 비롯해 수준 높은 백제 문화의 정수라고 할 만한 귀중한 문화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드문 기회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무령왕릉 출토품 124건 5천232점을 비롯해 자료 136건 5천283점을 선보이는 특별전 '무령왕릉 발굴 50년,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며'를 9월 14일 개막했다. 백제 제25대 임금인 무령왕과 왕비가 함께 묻힌 무령왕릉은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옛 송산리 고분군)에서 1971년 7월 우연히 발견됐고, 백제와 동아시아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획기적 유물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이번 전시는 상설전시실인 웅진백제실과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웅진백제실은 무령왕과 왕비가 착용한 유물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도입부에는 백제인의 사상과 내세관이 투영된 받침 있는 은잔을 두고, 아름다운 문양을 확대해 감상하도록 했다. 왕비 머리 쪽에서 발견된 은잔은 은으로 만든 뚜껑과 잔, 청동 재질 받침으로 구성된다. 왕과 왕비 관구미개, 목관, 금귀걸이, 청동거울 등 다채로운 유물도 볼 수 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무덤 내부를 지키고 있던 짐승 조각인 '진묘수'(鎭墓獸), 무덤 주인이 무령왕임을 알려준 핵심 유물이자 묘지로 쓸 땅을 사들인다는 내용을 새긴 돌인 지석(誌石) 등으로 발굴 이후 이뤄진 학술 연구 성과를 조명한다. 왕과 왕비 목관 재현품, 왕과 왕비 금동신발, 무덤에서 출토한 직물을 조사해 만든 재현품도 선보인다. 전시는 내년 3월 6일까지.



[문화재청 제공]

**호리병일까 사람 얼굴일까...'고창 병바위 일원' 명승 된다**

보는 각도에 따라 엮어진 호리병 혹은 사람 얼굴을 연상시키는 전북 고창의 독특한 바위 풍경이 명승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고창 병바위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창 아산면 반암리 호암마을에 있는 병바위는 높이가 35m에 이르며, 주변에 커다란 소반 바위·전좌바위가 있다. 중생대 백악기에 분출된 용암, 화산재로 만들어진 암석인 응회암이 풍화·침식 작용을 거치면서 형성된 지형이다.

수직 절벽인 단애, 층층이 쌓인 퇴적암, 바위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생성된 구멍을 볼 수 있다. 바위에는 백화등·담쟁이 같은 덩굴식물이 자생하고, 주변에는 소나무 군락이 존재한다. 호리병 바위를 뜻하는 '호암'(壺巖)으로도 일컬어지는 병바위에는 흥미로운 전설도 내려온다. 잔치집에서 매우 취한 신선이 쓰러지면서 소반을 걸어서 소반에 있던 술병이 강가에 거꾸로 꽂혀 병바위가 됐다고 한다.

이 전설로 인해 주변 바위와 함께 '금반옥호'(金盃玉壺), '선인취와'(仙人醉臥)의 명당으로 꼽혀 왔다. 전좌바위 옆면에는 작은 정자인 두암초당이 있다. 변계량 후손으로 해서 김인후 아래에서 수학한 변성은·변성진 형제와 후손들이 학문을 닦았다고 전한다.

**"해발 1천330m 구름 속을 걷는다" 운탄고도 트레킹 2021 개최**

글 이재현 기자



[강원관광재단 제공]



[강원관광재단 제공]

강원도관광재단은 내년 5월 개통하는 '운탄고도'(運炭高道)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운탄고도 트레킹 2021'을 10월 9~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운탄고도는 과거 석탄을 차량으로 운반하던 길이다. 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은 이 길을 동부지방산림청과 함께 백두대간을 횡단하는 명품 트레킹 코스로 재탄생시켰다.

영월 청령포, 정선 만항재, 태백 황지연못, 삼척 미인폭포 등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와 숲길 등 지역별 명소를 감상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영월, 정선, 태백이 만나는 '만항재를 출발해 도롱이 연못에 도착하는 기본코스 14.2km와 정선 '새비재'까지 전체 거리 32km 구간을 완주하는 장

거리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운탄고도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999명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한다. 참가 비용은 기본 코스 1만원, 장거리 코스 2만원이다. 강원도관광재단 관계자는 "해발 1천330m 고원지대를 따라 천혜의 자연이 수놓은 아름다운 원시 숲길과 백두대간의 절경이 펼쳐지는 신비한 탐험로를 경험할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참가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화성 일대에서 미디어아트쇼**

글 김인유 기자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만천명월(萬川明月): 정조의 꿈, 빛이 되다'가 10월 24일까지 수원화성 화서문과 장안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는 영상과 사운드로 공간을 빛어내는 프로젝션 매핑(Projection Mapping)과 특수조명을 결합해 조선 시대 정조대왕의 문·무·예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디어 작품을 보여준다.

수원화성의 화서문과 성벽 등 최대 220m 구간을 무대로 미디어아트쇼의 메인행사인 '미디어 파사드&라이트쇼'를 선보인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진작가 7팀의 뉴미디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성안마을 미디어아트전'이 행궁동 카페거리에서 열린다.

축제기간 장안공원 일대에서는 수원화성과 문화재를 주제로 한 디지털 전시·체험행사도 진행된다.



[수원문화재단 제공]